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 교육 : 속진과 심화”에 대한 토론

윤 혁 중
(토 론 자)

I. 들어가는 말

개개인에게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하고 개별적인 교육의 실시는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고 구현해야 할 교육 방법임을 절감 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박사님의 영재 교육 이론에 우선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실시의 성공적 여부는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공감과 그 필요성의 인지도와 함께 영재 교육을 베푸는 교사의 정성과 부단한 연수에 달려 있다. 또한 영재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재 판별의 적절성, 영재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상급 학교 진학 등 민감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해야 함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충족된 것이 없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제한점이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 교육이므로, 특수 목적 학교가 아닌 거의 영재 교육을 하지 않는 일반 학교의 현실태를 중심으로 영재 교육의 타당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 교육의 문제점

1. 영재 판별의 어려움 및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오늘날은 각 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 자는 그 분야의 영재로 간주된다. 실제로 이는 오늘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재능은 우수한 지능을 가진 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사회의 고등학교만 보아도 예술고가 있고, 또 과학고가 있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이 있다. 이 학교들은 예술, 과학, 어학, 체육 등의 적성을 지닌 영재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기관이다. 물론 오늘의 논제는 그런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 학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규모도 지역에 따라 모두 여건이 다르다. 이 다양한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적절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영재의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집착력과 창의성이 나타나도록 지도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우수아들을 관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아직도 필답 고사(본고사 유형)의 주요 및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성적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몇 가지 지능 및 적성 검사에 의해 자기의 능력과 성향을 인정받고 있지만 모두가 지필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중 고교생의 실정이다. 영재 교육으로 비교적 일찍 자리 잡은 과학고등학교의 현실도, 영재용 심화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과학고 교사들의 교과별 화합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니,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 어려움을 짐작할 만하다.

2. 속진과 심화의 상급 학교 진학과의 연계성 문제

오늘날 현실은 소위 일류 대학이라고 하는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가 되지 않는 교육 형태는 학교 및 학부형 등 모든 교육 요소로부터 도외시 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만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우리 의식의 밑바닥까지 자리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유인책이 없으면 안 된다. 과학고의 속진과 심화 과정도 매년 변하는 대학 입시 제도하에서 그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학교에서도 속진과 심화의 영재 교육이 어떻게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 고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요즈음 일반 고등학교는 대부분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능력별, 수준별 반 편성은 대학 진학을 위한 성적 위주의 반 편성에 불과하며, 방과 후 실시되는 수준별 반 편성도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과목의 심화 학습에 불과하다. 방과 후의 특별 수업은 논술과 대입수능 과목 심화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속진과 심화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의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아닌, 집단 실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3. 교사의 창의성 배양과 영재 교육의 여건 조성 문제

이러한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원칙은 오히려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창의성은 교사하고 지식 하나라도 학생들에게 더 가르쳐 입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학생은 학생대로 성적과의 씨름으로 지칠대로 지쳐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된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은 교수-학습의 공급자인 교사, 수요자인 학생 모두가 지쳐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 고등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교사가,

- (가) 학생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 (나) 학생 각자에게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세우며,
- (다) 학생 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한다.

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교사들에게 창의력을 배양하게 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사도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여,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구체적 목표 구현을 위해 교사의 여건(수업 시수, 연수 체계, 입시 위주식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학생에 대한 관심과 정성, 창의성 있는 질 좋은 개별화 교육은 실시 될 수 있다.

Ⅲ. 영재 교육을 위한 대책 및 제언

1. 단계별 심화 학습의 적용 및 속진에 관한 견해

“영재 교육의 대상이 되는 많은 우수아들은 속진보다는 심화 프로그램이 더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우수아를 위한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일반 학급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과 통합시켜 실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는 조석희 박사의 견해는 가장 현실적인 영재 교육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특별히 뛰어난 분야의 과목을 대학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동시 등록제,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고등학교 과목이지만 고급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는 방법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연계성 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교육 개혁 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곧 다양한 수준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교과별 속진을 실시할 예정이라니 기대감이 더하다. 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고, 대학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면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과학교와 대학과의 연계성으로 공통 과제를 수행하고 학점과 실적점을 받으며 그 대학에 입학할 특전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2. 교사의 역할 및 여건 조성

영재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영재라 하더라도 그 교사를 능가하기는

어렵다. 교사는 항상 새로운 심화 학습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적 영재 교육 프로그램도 창안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단한 자기 연수 및 해외 연수, 대학 연수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으로 새로운 학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양한 연수 활동 및 연구회에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잡무는 경감해 주고, 시수도 조정해 주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다양한 집단 구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영재 교육을 위해서는 그 이외의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도 매우 동감한다. 취미 집단과 우수 집단 등 다양한 집단 운영은 학교 전체의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는 특정 집단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는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집단을 구성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하여 모든 아이를 각자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식적이고 전통적인 학급 편성을 벗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지식 주입의 입시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적성과 소질에 따라 상급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현실이 빨리 왔으면 한다.

IV. 맺는말

학생들의 개별화된 교육적 욕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의 현실이 대학 입시에 의하여 개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교사는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바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기초를 둔 학생 개개인을 위한 바른 교육, 열린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보통 학생들이나 그 이하의 지적 수준인 학생들의 교육도 소홀히 되어선 안 된다. 영재 교육은 우수 아들의 교육적 욕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교사들은 부단한 자기 연수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변화를 눈여겨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영재 교육의 여건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 차원의 교사들을 위한 여건 개선, 고등학교 영재 교육과 대학과의 긴밀한 입시 제도의 보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활기찬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여건 조성 과 교사들의 다양한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성어린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와 유기적인 관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